

十二日：醴泉邑內(開心寺址)石塔、東本洞塔像―店村經由大乘寺着

十三日：大乘寺(石塔、木幘、鐵二軀、禁口、塔材)―四佛岩磨崖如來坐像―妙

寂庵(銅鐘)潤筆庵(石塔二基、禁口)

十四日：大乘寺寺蹟記 및 諸文書調査―金龍寺(石塔、石佛、銅鐘、禁口)―店

村、醴泉經由 安東着

十五日：安東 鶴南國校石佛立像―鳳停寺(極樂殿、大雄殿、石塔)―開目寺(圓

通殿、塹塔址)

十六日：上京

◎ 石窟庵白毫의 復元

그사이 製作 中이던 白毫 三個가 完成되어 八月九日 金岸基 黃壽永 兩委員 과 金月城 教育長 寺利側 立會下에 그 中 一個를 選定 施工하였다. 國產水晶을 擘아 裏面에 純金板을 받친 것으로서 徑 四 cm 厚 〇.七 cm、石窟庵 信徒의 喜捨와 金如幻和尚의 發願이 있었다.

◎ 崇實大 서울先史遺跡 發掘

八月下旬 서울市 城東區 역삼동 山二二의 一인지 매봉에서 發掘중이던 崇大(金良善 教授)에서는 住居址(柱址 13) 石斧 二點、石鏃 一點、半月形石刀 一點、土器 六點 등을 收拾하고 新石器時代로 推定하였다.

◎ 桑港 國際東洋美術심포지엄

八月二十八일부터 九月四일까지 美國 桑港 데영博物館에서 열리는 國際東洋美術심포지엄에 韓國에서는 다음 三人이 參加했다.

金載元 金元龍 崔淳雨

이 심포지엄에는 世界各國에서 招請된 東洋美術關係學者一百十二名이 參加했다.

— 第七卷 第十號 通卷七十五號 —

高麗梵鐘의 新例(其七)

黃 壽 永

本誌(七卷 八號)에 실은三口의 小鐘에 이어서 今年 各地出土의 在銘

二口와 無銘一口를 소개한다.

(1) 佛頭頂帶 靑銅小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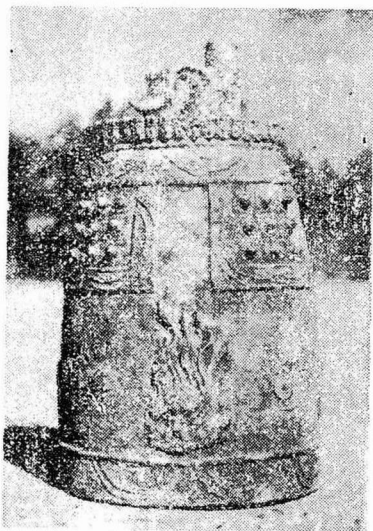
鐘體가 細長하고 彫紋이 精密하여 비록 小品이나 優作이라 하겠다. 全面綠鏽로 덮였는데 甬筒上端이 缺損된 以外는 거의 完全하다. 樣式은 通型을 따르고 있는 바 半圓唐草文上帶 위에 돌린 立狀帶가 흔히 보는 三角蓮紋이 아니고 菩薩頭形 四十三首를 連續시킨 것은 처음 보는 特異點이다. 四乳廓 各九乳인데 乳廓帶에는 W形의 雙線이 들어 있다. 乳廓間에는 飛天 二軀와 下帶에 붙은 二座의 長方標札形이 交代로 陽刻되었는데 後者は 撞座를 表現한 듯하며 또 乳廓下에는 각각 雲文이 새겨졌다. 龍鈕는 足部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비교적 얇은 甬筒과 一鑄되었는데 龍頭의 彫刻은 纖細하다. 出土地는 全南 寶城郡 有治面 寶林寺隣近 俗稱「중터」라는 地點이라는 바 伴出遺物은 없었다고 한다. 形態의 端正함과 彫飾의 優美함과 특히 鍾聲의 清雅함에서 高麗逸品의 하나라 하겠는데 그年代는 中期를 더 降下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形態나 彫刻에서 新羅形式의 傳承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貴重하다.

全高二〇cm 鐘身高一六·五cm 上徑九cm 下徑一二cm 厚一cm

서울特別市 黃潤克氏 所藏(六月調査)

(2) 辛亥銘 正方寺小鐘

通型의 小鐘인데 龍鈕部가 특히 高大함이 注目된다. 鐘身全面은 淡靑



色을 띄었는데 혹시 出土後의 洗滌한 것이나 아닐까 한다. 上帶(如意頭紋과 蓮珠文) 下帶(唐草紋과 蓮珠帶)가 있고 上帶위엔 낮은 三角立狀帶가 돌렸으며 四乳廓 各九乳인데 唐草文乳廓은 上帶에



서分離되었다. 그리고乳廓間의鐘身에는 풀어얇은合掌形의菩薩二軀와八瓣蓮花紋 撞座가交代하고 있는데彫文은鮮明하다. 下帶에接近하여二行縱書의銘文이細線陰刻되었는데楷書

體로서字徑 1cm이다.

辛亥四月 日徒內唐冲 存彦 溫實 善肝 金厚尹文均厚近淵光必迪鈞崔

尙金好い?

世稱 元卜 夫三 小斤三十 正方寺納]

龍鈕는隻龍으로兩足(前足舍珠)이 잘表現되었으며 긴甬筒 위에는五珠가 둘러 있다. 各部樣式과彫紋에서 미루어 그年代는高麗下代로推定되나形態의整齊함과保存이完好함에서 이것 또한當代의優品이다. 全北出土라고傳한다. 서울特別市 洪性夏氏 所藏

全高一三三cm 鐘身高一五·五cm 下徑一三·三cm 厚三·三cm 上徑一〇cm 菩薩形 高七cm 撞座徑四·五cm (九月四日 調査)

(註) 既存의 辛亥銘品으로서는 至大四年辛亥二月銘鍾(在佛巴里 本誌三一七)과 東京 廻眞寺鐘(日本 夫倫寺 所藏「金石遺文」七七八) 등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此品보다도 크다.

(3) 至元銘 青銅小鐘

今年六月 忠北 報恩에서 出土되었다고 할뿐 그 이상의 知見은 없다. 靑綠色의 녹이 全面에 덮여 있는 小品으로서 龍鈕一部가 缺損된 以外는 保存이 完全하다. 鐘體樣式은 通型으로 別다른 特異點이 없다. 上·下帶에는 雷紋이 들렸고 鍾肩에 三角立狀 蓮紋帶가 들렸으며 四乳廓 各九乳이다. 胴體에는 乳廓 밑에 蓮花重瓣의 撞座四座와 乳廓間地에 菩薩形 合掌

坐像四軀가 交代하여 配置되어 있다. 甬筒은 短小하고 隻龍足部는 缺失되었다. 銘文은 下帶에 接하여 一行縱書 陰刻되었는데 字徑 一·五cm 로 서 다음과 같이 判讀되었다.

至元卅十一年甲午五月 日造成道堂殿前近之□善万生一回□□父母
己身福壽延長之願入重二斤二斤?

至元三十一年은 高麗 忠烈王二十年 서기 一二九四年에 해당한다. 鐘體는 下徑이 넓고 彫紋도 形式에 훌륭으며 鍾聲도 清雅하지는 못하다. 銘文이 있어 製作年代를 알 수 있으나 內容一部分의 뜻을 알 수가 없다. 今年 六月에 忠北 報恩出土라 傳하는 바 現在未詳.

高二十cm 下徑十五·三cm 上徑十一cm 厚一·四cm (一九六六年 七月四日 調査)

奉化 半跏思惟石像址 發掘概要

尹 容 鎮

一九六五年 十一月 奉化郡 物野面 北枝里에 遺存하는 磨崖如來坐像①의 下半部를 發掘調査中 그 餘暇에 그곳 周邊의 地表調査를 한 바 있어 그때 半跏思惟石像이 發見되었다고 함은 이미 紹介되었거니와② 그後 一九六六年 一月 八日에는 이 石像을 慶北大學校에 移置하고자 現場에서 作業途中 思惟半跏石像에 使用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蓮花文足臺를 隣近에서 拾得한 바 있었다③. 이와 같은 部分的發見은 石像原位置의 遺構 解明과 未發見의 上半身을 찾아야 하겠다는 課題를 더욱 재촉하던 中慶北大學校 博物館에서 一九六六年 六月二十八일부터 一週日間 石像發見地點을 發掘 調査하게 되었던 것이다. 發掘地域은 石像이 顛倒되어 있었던地點에서 北便으로 民墓二基가 上下로 자리잡고 있는 그 中間空地이다. 兩墓間의 間隙이 좁아서 自然 發掘面積도 幅넓은 全面發掘이 되지 못하고 部分的 調査에 그치지 않을 수 없는 艱難한 作業이 되어 버렸다. 民墓 사이를 發掘하게 된 緣由는 地表上에 礎石이라 생각되었던 方形石物